

#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분야 최근 경향연구

-노인환경전문학술대회 발표물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Major Trends appeared in recent Aging Friendly Environment for Social Sustainability

-with Reference to Presentations of the Conference on Environments for Elderly-

안 소 미\*  
An, So-Mi

이 연 숙\*\*  
Lee, Yeun-Sook

### Abstract

Entering into the 21th century, the whole world is facing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environmental disruption, resource exhaustion, and social isolation due to the consequences of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as the world population is aging, th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are being suggested with a new paradigm of environmental design for sustainable society providing more affluent and safer life for them. Aging societies are experiencing the difficulty in pursuing persistent vitality of life when aged population is socially excluded, and communities are stagnant due to the decrease of economic activities. In other words, those factors are causing the problems of social sustainability associated with the vital duration of local society and communities.

In order to develop successful environment for aging society,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cisely review how advanced countries are changing their direc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trends of the aging friendly environment and find out the measures to promote social sustainability under the crisis of aging society. For this purpose, using qualitative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presented at a professional conference <EFA>, that showed current trends clearly, into three dimensions of social sustainability; the social integration of senior living communities with local society, the vitality of the communities, and the invigoration of individual senior live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measures that attempt to enhance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aging population can be also used to invigorate the communities.

키워드 : 지속가능성, 최근 경향, 고령친화 환경, 사회통합

Keywords : Sustainability, Current Trend, Aging Friendly Environment, Social Mix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의의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의 고갈 등의 생태계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자원부족, 고령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이들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디자인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들

의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친화 환경 계획에 새로운 시각이 일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오면 첫째, 늘어난 노인인구들에게 다양한 보호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 전용 계획 주거 환경이 발달하게 되면 이들 노인인구는 고립이 되어 사회적 배제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둘째, 노인의 노화로 인해 활기가 떨어지면서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 전반에 침체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제반환경이 이들 고령화인구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활력, 즉 웰빙(well-being)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지역사회와 커뮤니티가 그대로 활기차게 존속할 수 있게 하는지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여러 해결책이 모색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타 선진국과 달리 고령친화 환경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있고, 최근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501771@gmail.com)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yeunsooklee@yonsei.ac.kr)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절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 07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수요에 따라 생긴 노인주거 시설은 선진국들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계획되어 왔고 또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이 축적해온 노인주거 계획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이들 선진국들의 최근 환경들이 빠른 정보와 사회 속에서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현재의 시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환경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방향을 선화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하고 한국 문화적 특성을 접합시켜 미래 환경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최신의 변화 정보는 국제적인 정보가 교류되는 컨퍼런스들에서 모여지므로 여기에서 논의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이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노인환경 계획 분야의 최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의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존속시키는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령화 위기에서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고자 함이었다.

## 2. 문헌 고찰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주요한 국면이 되며 노인환경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상들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사회적인 생기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문헌고찰에서는 첫째, 지속가능성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고찰하여 본 연구의 주된 시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임을 짚어보고, 둘째, 고령자 환경의 전반적인 발전 성향을 통해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며, 셋째,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1 지속가능성의 시대적 패러다임

1987년 W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Brundtland(브룬트란드)보고서 발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개념<sup>1)</sup>이 구체화되었는데, 1992년 리우 회의(The Rio Earth Summit)<sup>2)</sup>에서 ‘Agenda32’의 채택으로 인해 세부지침이 더 구체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정부의 주요 개념과 협약 그리고 관련된 여러 선언에 의해 많은 국가와 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와 역할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Baker(2006)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생태학적(ecological), 사회적(social) 그리고 경제적(economic)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구적 관점에서의 적용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포함한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 안에 포함된 개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에서 환경적, 경제적, 그리

고 사회적인 고려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이용우 외(2004)가 정리한 국제기구 및 각 나라별 지속가능성 지표 내용에 따르면, OECD는 환경지표와 함께 사회·경제 지표를 다루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환경연구소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는 자원과 환경적 차원에 덧붙여 불평등과 소외 등의 현대의 문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기후, 자원보존의 차원과 더불어 생활의 질차원에서 건강과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가족과 통합을 다루는 사회적 결합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세가지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가적 지표를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은 환경의 보존이라는 일차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통합과 생활의 질 등의 차원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공생하기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 2.2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송연 외(2008)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공간의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통합관점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며 유대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거주자들에게 만남의 장소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거주민의 사회성을 높여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도시의 사회적 발전과 커뮤니티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Gates & Lee(2005)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는 자체자원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미래에 문제점들을 방지하거나 다룰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웰빙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삶의 질, 건강, 평등, 사는 보람, 사회적 통합 등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커뮤니티 자원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 또는 인적 자본으로 개인이나 커뮤니티 전체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과 특성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본 또는 커뮤니티 자본으로 관계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유행하는 단어가 되고 있는데(Nicholas, 2000),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은 사회적 통합 개념에서 이야기된다. Mario Polèse와 Richard E. Stren(2000)은 사회적 통합은 “평등한 방식에서의 통합된

1) WCED. 1987. "Our Common Future".

-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지침

다양한 그룹과 문화적 관습/실행들”이라고 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는 사회적 또는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을 위한 역동적 장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고무시킨다(Nicholas, 2000).

이러한 사회적 통합 이슈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사회로 진전함에 따라, 커뮤니티의 활기 저하와 쇠퇴의 문제와 함께 노인 소외 등의 문제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고령인구를 위한 환경과 연계되어 중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3 고령인구를 위한 환경

노인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며, 특히, 한국사회의 노인층 증가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이정화,2007).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환경계획에서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주택인데, 이는 주택이 인간에게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정서적·정신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인에게 있어 주택은 다른 생활주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며 그 가치는 더욱 크다(Huttman,1985).

이연숙(2003)은 문화와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인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노인 복지 방향이 'Aging in Place(거택)'이라 하였다. 이것은 Harris(1988)에 의하면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형 집합 주거 시설에 다양한 주택의 형태가 적용되는 등 그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Calkins(1995)는'Aging in Place 개념을 4가지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적인 의미로 같은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노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노인계획주택으로 한번 이주하여 그곳에서 계속 살게 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하나의 건물 내에서 노후의 상황별 서비스 제공에 맞춰 층을 바꾸어가는 주거방식이다. 마지막으로는 aging in place의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같은 주거 단지 내에서 이동하며 거주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보된 형태로 발전된 연속적 보호 체계형(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주거형태가 그 예이다. 즉, 하나의 거주 장소가 정해지면 노화 과정에 따라 필요해지는 서비스를 융통성 있게 제공(Flexi-Care)받으면서 삶의 경험이 누적되어온 장소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확대되어가는 'Aging in Place' 개념은 기존 노인주택에 대한 정의를 벗어나서 앞으로 혁신적인 융합형이 발전되리라 예상된다. 그 일례로 이연숙<sup>3)</sup>은 기존의 아파트의 특정층을 노인공동사용 주택을 삽입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이정화외(2007)는 이러한 개념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고령화 미래를 대비해 우리의 근린환경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한다는 관점의 이러한 최근 경향은 외국의 최근 서적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Butler(2009)는 계획된 주거의 양상이 마치 기존의 주거 물방울처럼 점점 확산되면서 일종의 NORC<sup>4)</sup>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그는 Aging In Place의 개념으로 강화됨에 따라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 내에 다양한 주거유형과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계획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시설과 같은 느낌이 아닌 자연스런 거주환경의 분위기를 지닐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마을의 형상을 띄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NORC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내 은퇴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aging in place를 선택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 2.4 사회 통합적 노인주거 환경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Vardy, 1984), 선진국의 경우 노인의 사회적 통합은 이미 여러 국면에서 논의 되어 왔고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되지 못한 노인들의 경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Pringle, 1978), 지역사회 내에서의 높은 사회적 교류와 참여는 노인들의 정신건강이 악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chael st al, 2001; Zunzunegui et al, 2003). 이 밖에도 사회적 통합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립적인 노인의 생활을 지속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Kasper & Pearson, 1995; Steinbach, 1992; Davis st al, 1997) 주장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양한 세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고 교류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1993; 진명숙, 1995; 박근형 외, 1996) 한국의 주거문화모델<sup>5)</sup>로 이연숙(1990)은 지역사회 내에 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삼대가족 주택을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야 할 노인주택의 주요모델이자 일반주거문화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동거를 현대적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동거형, 인거형, 근거형 등 하나의 단지내에서 함께 사는 것까지를 현대적 동거로 보아 다양한 평면 및 이들의 생활을 지원해줄 수 있는 폭넓은 주민의 사회, 복지, 문화생활을 위한 커뮤니티

- 3) 서울시의 융합기반사업단에서 미래의 환경으로 여러 새로운 주거 유형들과 제품들을 소개 혹은 개발하였다. 이연숙, 고령친화 혁신디자인, 2006
- 4) 'Age in Place'의 선택으로 자연적 발생하는 은퇴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를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라 부른다. Robert N. Butler. Re-creating neighborhoods for successful aging, Health Professions Press ,Inc., 2009 xiv
- 5) 문화부 문화정책과제. 1990. "한국형 주거문화 모델개발 방안 연구 보고서", 이연숙. 1993.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공간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환경 체제였다. 이연숙(2003)은 다기능 모드의 미래주택으로 「건강주택」6)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주택은 거주자의 생애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개념과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적용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의 건강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 모델이다. 즉, 하나의 단위주택이 두 가구를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게 됨으로써 혈연, 비혈연 가족들이 노화가 되더라도 함께 살 수 있게 설계된 것이었다. 박근형, 양우형(1996)도 이연숙의 시각과 유사하게 3대가 단위주택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고 단지 차원에서 젊은 세대와 함께 혼합 배치하여 세대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지역사회 통합형 모형을 연구한 바 있으며, 최근 이연숙 외(2006)는 기존 주거단지가 자연스럽게 고령친화 커뮤니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공동 주택에 고령자 케어가 가능한 주거를 자연스럽게 삽입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던 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에 근접해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노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3. 연구방법 개요

#### 3.1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분석 대상 정보는 고령친화 환경에 대한 전문가 컨퍼런스인 「Environments For Aging」(EFA)<sup>7)</sup> 국제 대회로부터 추출하였다. EFA는 고령친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개념 그리고 연구 내용, 최근의 개발된 사례 등 학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실제 사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류하는 유일한 고령친화 환경 전문가 컨퍼런스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2009, 2010년도에 발표된 각각 31개와 38개, 총 69개의 발표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질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되 내용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의 기준 유목은 지속가능성의 개념 하에 첫째, 노인전용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와의 사회 통합적 연계 특성, 둘째, 노인 커뮤니티 내의 활성화 특성, 셋째, 노인 개인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특성의 세 가지 관점으로 하였다.

정보의 수집방법은 2009년, 2010년 각각 3인의 연구원이 미국 컨퍼런스 현장에 방문하여 발표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발표물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발표자와 접촉하여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각 발표 내용의 분석은 분석단위별 핵심사항을 추출해내고 추출된 핵심사항들을 분석 유목에 따라 분류하고 이들을 종합 정리하여 최근의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 3.2 분석의 틀

「EFA 2009」와 「EFA 2010」에서 교류된 각각 31개와 38개의 발표 내용과 요약문을 번역·정리하였고, 이를 다시 재요약하고, 이것에 내재되어있는 핵심을 정리하였으

며, 이를 통해 주요 핵심사항을 발췌하였다. 문헌고찰에서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이들 핵심사항을 분류·연결하여 지속가능한 고령친화환경에 대한 최근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의 예제에서 이와 같은 분석틀을 보여준다.

**[EFA2010, E21] Petula Clark 가정 : 실패한 다운타운을 재생하는 해결책으로 강구되는 CCRC<sup>8)</sup>**

현대의 개발 패턴은 고립되고, 과체중의, 우울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존재를 창조해내면서 미국인 커뮤니티에 강렬한 영향을 가져왔다. 많은 CCRC는 교외에 위치한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반면, 그 결과는 종종 고립되고 환경에 연계되지 못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러독스에 도전하는 사례가 다운타운에 CCRC를 계획해 재생한 사례이다. 의학적 연구와 건축적 조사, 비용/이익 분석의 광범위한 수집을 통해, 이러한 사례는 나라 전체를 통해 죽어있는 다운타운의 잉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주는 매커니즘으로서 장기 케어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한다. 기존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CCRC의 더 다양하고 비용-효율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세대의 이웃들이 다시 유행하는 것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한다. 이 사례는 효율성에 대한 것이며, 또한 시너지효과를 보여주며, 커뮤니티에 관한 고려를 보여준다.

- [요약]** 교외에 위치한 많은 CCRC가 편리한 반면 종종 고립되고 환경에 연계되지 못했는데, 죽어있는 다운타운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방법으로 장기케어를 활용하는 사례는 다운타운 재생의 방법과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한 은퇴 커뮤니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 [핵심사항]** 노인촌 변화 경향, 도시재생, 커뮤니티
-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통합차원으로 분류 : 쇠퇴된 도시에 노인촌을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재생하는 시도가 이루어짐
- [경향]**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재생

그림 1. 분석틀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 「EFA2009」 31개의 발표문과 「EFA2010」 38개의 발표문을 자료로 각각의 내용을 번역·정리하여 핵심사항을 찾아내었다. 지면 제약으로 총 10개의 발표문을 예제로 소개하면 표 1. 과 같다.

6) 의료건강 주택 전시회. 2003. COEX.  
이연숙,이성미. 2006. “건강주택: 21세기 미래 주택 기획을 위한 전략적 신사고”. 연세대학교 출판부

7) www.efal0.com,  
EFA는 고령인구의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을 창조하는 아이디어들을 교류하기 위해 3일 동안 개최되는 컨퍼런스로서, 2009년에는 미국 보스턴, 2010년에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었다.

8)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연속적 보호노인촌

표 1. 내용요약과 핵심사항 (2009:E01-E5,2010:E02-E5)

번호	제목	내용	핵심 사항
E01	Creating Nurturing Environments to Enrich the Lives of Seniors	노인성 치매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을 다양한 시점으로 논의함으로써 미래의 노후생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알츠하이머 질병, 최첨단 기술에 대한 고려
E02	Soccer Moms and Pizza Pies - Urban Planning to transform Facilities & React to the Shifting Boomer Marketplace	지금까지 CCRC는 미국 교외 주거촌의 전원마을처럼 계획되어 왔는데, 신노년층의 요구는 공동체적 삶의 커뮤니티를 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커뮤니티를 계획할 때 노인층이 생동감있게 살 수 있도록 도시 및 주택을 만드는 기술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촌 변화 경향, 도시계획 기술, 커뮤니티 창조기술
E03	Pre-Design Programming - Creating a Solid Foundation for Building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기획단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거주자들의 경험을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타당한 기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디자인이전 준비단계의 중요성,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기획디자인 프로그램
E04	Intergenerational Care for Aging in Place	질적케어, 커뮤니티 협력, 효과적 설계와 디자인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커뮤니티에 전적인 참여자로 될 수 있게 한다. 어른과 어린이이케어 통합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간 공간이 모든 연령에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면서 상호작용을 위해 어떻게 디자인 되었는지 알아본다.	세대간 공간디자인,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E05	Linden Ponds at Hingham - A SAGE Post-Occupancy Evaluation	CCRC의 커뮤니티 건물과 독립 주거 아파트들의 POE(Linden Ponds at Hingham)를 통해, 물리적 환경이 거주자들의 사회적, 교육적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를 어떻게 도와주고 건강한 삶을 지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CCRC의 커뮤니티 건물과 주거아파트의 POE, 건강한 삶
E01	Community Integrated CCRCs for the Baby-Boomer Generation	CCRC와 주변 커뮤니티가 통합되어 자원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잠재력과 성공요인들을 볼 수 있는데, 주변 커뮤니티와 연동되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는 베이비부머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뿐 아니라 경제적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변 커뮤니티와 통합된 CCRC의 잠재력
E02	Innovations in Memory Care & Design - A Person-Centered Approach	치매환자를 위한 메모리 케어에 있어 시설화된 무력증을 극복하기 위해 좋은 친구같은 치매간호사의 접근과 개인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의 접근에 대해 강조한다.	사람에 중점을 둔 간호
E03	International Design Perspectives	한국, 몰타, 영국에서의 거주 후 평가 사례를 통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이슈들에서, 거주자들을 위한 집과 장소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고령친화 디자인에 대해 보여준다.	고령친화 디자인의 국제적관점-집,장소의 느낌-
E04	My 24Hours As A Nursing Home Resident	과거 병원시설분위기의 널싱홈에서 아트웍을 이용한 온화한 분위기의 현재 널싱홈을 비교해보고, 집과 같은 분위기의 미래형 널싱홈 사례를 보여준다. 가족을 중심으로한 케어를 제공할때의 어려움점에 대해 알아본다.	가족중심의 케어와 집같은 분위기의 널싱홈
E05	Culture Shock - Shifting the Regulatory Paradigm	질(quality)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로 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 거주자 중심의 케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거주자중심 케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규제환경

4. 고령친화 환경 분야의 최근 경향 분석 연구

「EFA2009」와 「EFA2010」에서 소개된 발표문들은 일차적인 정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내용을 사회적 통합차원과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 개인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차원으로 나누어 해당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했다.

표 2. 각 발표 논문별 분류 종합표 (EFA 2009)

번호	핵심 사항	이슈		
		a	b	c
aE01	알츠하이머 질병, 최첨단 기술에 대한 고려			●
aE02	노인촌 변화경향, 도시계획 기술, 커뮤니티 창조기술	●		
aE03	디자인 이전의 준비 단계의 중요성, 사용자와의 의사소통, 기획 디자인 프로그램		●	
aE04	세대간 공간 디자인,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		
aE05	CCRC의 커뮤니티건물과 주거아파트의 POE, 에릭슨 건강 프로그램, 건강한 삶		●	
aE06	알츠하이머 질병, 신경과학과 디자인			●
aE07	이전 공업도시의 은퇴 커뮤니티로 개발, 문화의변화, 기존이웃에 통합접근, 다면체적 고밀도 도심모델	●		
aE08	증거기반 디자인 활용을 위한 전략, 노인 환경을 위한 증거기반 디자인			●
aE09	노인에게 걷기의 유익함, 건물환경과 걷기 관계 대한 연구, 보행길 디자인과 보행빈도 관계에 대한 연구		●	
aE10	Aging in Community, 사용자 중심 해결책, 장기주거에 대한 포괄적 접근	●		
aE11	기술적으로 지지된 유니버설 디자인, 건강과 건강 기술의 결합			●
aE12	교외지역의 새로운 개조계획- 사회적 연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생태계	●		
aE13	다양한 집단의 요구를 고려한 커뮤니티 개선		●	
aE14	장기보호환경에서의 문화 변화, 환경증진 평가방법, 환경증진 패턴, 자가평가 데이터	●		
aE15	노인주거를 위한 그린빌딩 도구, 웹베이스·사용자중심·전자식 에너지절약 측정 도구			●
aE16	노인 환경에서의 그래픽,브랜딩,길찾기의 통합디자인			●
aE17	노인주택을 위한 개조 - 지속가능, 거주에 적합, 문화 변화의 개념, 새로운 기술			●
aE18	화재시 안전을 위한 법규, 장기보호 환경의 새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검토 요구	●		
aE19	Co-Housing 모델, 자체 해결 가능한 환경, 커뮤니티 네트워크, 그린빌딩 전략	●		
aE20	세대간캠퍼스,자연에서 배우는 기회,커뮤니티와 연결	●		
aE21	치매와 정신장애를 위한 소규모 그룹 컨셉, 건축과 기술의 가능성		●	
aE22	노인을 위한 환경사례			●
aE23	커뮤니티 시설관리자들의 인터뷰, 실재를 통한 문제 해결 사례	●		
aE24	지역장애환자를 위한 정원의 효과, 기억회복을 위한 옥외공간 가이드			●
aE25	널싱홈 디자인의 변화, 독립주택과 결합주택의 논의			●
aE26	LTHE에서의 인간과 감각환경의 상호작용, 교통기관에서의 시각장애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장치	●		
aE27	의도된 커뮤니티, 간호가 아닌 일상에서 지원받는 보호 환경		●	
aE28	노인주거 PJY 위한 자금조달/재정관리			●
aE29	수요자 중심의 접근, 다세대 생활 스타일, 건강관리, 건강기술			●
aE30	노인 보호형태와 환경요소, 노인 생활에 대한 이웃, 사이즈, 배치의 영향		●	
aE31	은퇴 커뮤니티와 대학의 연계	●		
계		9	10	12

\* a-지역사회와의 통합차원, b-커뮤니티 활성화차원, c-개인의 웰빙차원

표 3. 각 발표 논문별 분류 종합표 (EFA 2010)

번호	핵심 사항	이슈		
		a	b	c
bE01	주변 커뮤니티와 통합된 CCRC의 잠재력	●		
bE02	사람에 중심을 둔 간호			●
bE03	고령친화 디자인의 국제적 관점 : 집,장소의 느낌			●
bE04	가족중심의 케어와 집같은 분위기의 낯스름			●
bE05	거주자 중심 케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규제환경			●
bE06	고령자를 위한 적정 주택 :거주자중심, 팀 협력, 지속가능성, 자금조달계획			●
bE07	원시적 리듬, 치유적 정원			●
bE08	사람 중심의 디자인 개념을 위한 체계적 과정 : SAGE P.L.A.C.E.		●	
bE09	EFA 2010 디자인상 수상작	●		
bE10	ADA 규정으로의 개정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	
bE11	세대간 커뮤니티의 이득	●		
bE12	증거기반 디자인, 3-D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방법론의 잇점			●
bE13	모듈화된 assisted living :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무시키는 미래의 환경			●
bE14	최근의 증거기반디자인 - 건조 환경이 치매에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줌-			●
bE15	실내공기 질과 치유환경			●
bE16	그린스페이스 추가, 로봇주차등 새로운 기법의 주차		●	
bE17	지속가능한 고령자 생활환경			●
bE18	장기케어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작은 집을 바탕으로 한 환경			●
bE19	노인소비자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장기 케어 주택 -금융, 의료 측면			●
bE20	스쿠터에 대한 디자인 해결책		●	
bE21	다운타운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는 CCRC	●		
bE22	시력이 약화된 노인을 고려한 건조 환경의 디자인			●
bE23	노인주거환경에서의 건강과 장수, 지속가능성, 재생의 개념 통합			●
bE24	노인삶의 질, 거택 노화를 도와주는 기술 도입			●
bE25	CCRC에 도입된 건강센터의 잇점		●	
bE26	대학 기반 은퇴커뮤니티(UBRC) 개발의 증가	●		
bE27	헬스케어, 노인주거에서의 예술의 효용			●
bE28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은퇴 커뮤니티,이웃	●		
bE29	노인주거 커뮤니티를 위한 진보된 기술의 적용			●
bE30	장기케어 거주자를 위한 적절한 음환경 계획			●
bW01	헬스케어와 고령 프로젝트에서의 공공-사실 합작 P3 (Private-Public-Partnership)		●	
bW02	노인커뮤니티 대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세대간 캠퍼스	●		
bW03	접근 가능한 옥실 디자인			●
bW04	사람 중심적 케어를 목표로 개선되는 낯스름			●
bW05	외부환경으로의 접근성 개선		●	
bP01	정년이후의 정신적인 것과 유희의 중요성 -건강하고 행복한 노화를 위한 가르침			●
bP02	노인의 거택과 독립적 삶을 도와주는 가정의료와 보조기술의 발전, 주거와 커뮤니티 생활을 위한 적응디자인 컨셉			●
bP03	노인의 적응을 돕고 학생들과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	
계		7	8	23

\* a-지역사회와의 통합차원, b-커뮤니티 활성화차원, c-개인의 웰빙차원

이러한 세 차원으로 「EFA2009」의 발표문 분석은 표 2에서, 「EFA2010」의 발표문은 표 3. 에서와 같이 분석되었는데, 이것을 최근 2년간의 분석으로 묶어 내용 분석하였다. 각각 발표문의 핵심사항을 바탕으로 추출된 특징과 그 빈도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분류

사회적 지속가능성	EFA 발표문 내용			빈도(%)
	특징	번호	빈도(%)	
지역사회 통합차원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	aE04 ,aE20, aE31, bE11, bE26, bW02	8.7%	23.2 %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aE10, bE01, bE28	7.7%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의 재생	aE02, aE07, aE12, aE14, aE19, bE09, bE21	17.9 %	
커뮤니티 활성화차원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	aE09, aE21, aE26, aE27, aE30, bE17, bE25, bW05	11.6 %	27.5 %
	새로운 기술	bE16, bE20, bP03	4.3%	
	프로그램 또는 법규	aE03, ,aE13, aE18, aE23 bE08. bE10, bW01	10.1 %	
개인의 웰빙차원	보호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	aE01, aE06, aE08, aE11, aE16, aE24, aE25, aE28 ,bE07, bE12, bE13, bE14, bE15, bE22, bE24, bE25, bE27, bE30, bW03, W05, bP01	30.4 %	53.6 %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aE15, aE17, aE22, bE17, bE23, bE29	15.4 %	
	사람 중심 케어	aE29, bE02, bE05, bE06, bE19, bW04	13.0 %	
	집과 같은 환경	bE03, bE04, bE18, bP02	5.8%	

2009년과 2010년 두 해에 걸친 「EFA」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핵심내용들은 지역사회 통합차원, 커뮤니티 활성화차원, 개인의 웰빙차원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지역사회와의 통합차원은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의 재생,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또는 법규, 개인의 웰빙차원에는 보호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사람 중심 케어, 집과 같은 환경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전체 69개 논문 중 지역사회 지역사회 통합차원은 23.2%에서 다루어졌고,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은 27.5%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의 웰빙 차원은 53.6%로 가장 많았다. 내용요약에서 추출해낸 핵심사항들을 엮어서 각각의 차원에서 특징들을 찾아 분류하였는데, 지역사회 통합 차원은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에 대한 내용과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의 재생이 있었고,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과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또는 법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개인의 웰빙 차원에는 보호의 질을 높여주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사람중심의 케어, 그리고 집과 같은 환경이 있었다.

표 5. 사회적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본 특징

사회적 지속가능성	특징	내용
지역사회 통합차원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	-어른과 데이케어의 통합 -은퇴커뮤니티와 대학 캠퍼스의 통합 -주변 커뮤니티와 연동되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커뮤니티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 사는 세대간 커뮤니티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CCRC와 주변 커뮤니티가 통합 -기존의 이웃에 남아서 삶을 보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의 재생	-교외의 전원마을이 아닌 생동감 있는 커뮤니티로 계획되는 CCRC -공업지역이었던 도심에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 CCRC 계획 -죽어있는 다운타운 재생의 방법으로 CCRC 활용 계획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	-안전하고 흥미를 주는 걷는 길 디자인 -작은 그룹 컨셉(전문시설과 집사이의 균형) -빛, 소리, 감각의 고려한 장기케어환경 -일상과 의료를 지원받는 작은 규모의 의도된 커뮤니티 : 그린하우스 -외부환경으로의 접근을 개선하는 것 -CCRC에 건강센터를 두어 커뮤니티를 위한 촉매제 역할하게 함
	새로운 기술	-그린스페이스 추가, 로봇주차등 새로운 기법 -스쿠터를 고려한 디자인 해결책 -노인들의 적응을 돕고 학생들과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인의 웰빙차원	프로그램 또는 법규	-성공적 결과를 위한 기획단계의 중요성 -거주자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새로운 케어 환경에서의 거주자의 안전에 관한 법규 -디자인의 체계적 과정: 커미셔닝 -장애자를 위한 ADA 개정 -사실, 공공 합작 고령 프로젝트
	보호의 질을 높이는 환경	-치매환자를 돕기 위한 환경 디자인 -중거기반 디자인 -건강관리 기술, 유니버설 디자인 -고령환경에 그래픽, 디자인을 통한 길찾기 -실내 공기의 질 -청각 상실자들을 위한 적절한 음환경 -거택 노화를 도와주는 기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빌딩 도구 개발 -기존건물을 다른 문화로 재생하는 지속가능한 개조(시설에서 주거로) -지속가능한 고령자 생활을 만드는 4가지 차원(삶의 거주질, 구성적 가치와 비전, 작업, 물리적 환경) -노인주거환경에서의 건강과 지속가능성, 재생의 개념 통합(베이비부머의 환자치중심 케어)
	사람 중심 케어	-소비자 중심의 건강 케어 -친구같은 치매간호 접근 -거주자 중심의 질에 초점을 둔 커뮤니티로 문화가 변화: 규제에 대응 -사람 중심적 케어를 목표로 개선되는 널싱홈
집과 같은 환경	-집, 장소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고령친화 디자인 -가족중심의 케어와 집같은 분위기의 널싱홈 -장기케어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작은 집을 바탕으로 한 환경 -거택노화를 도와주는 가정의료와 보조기술의 발전	

표 5.의 내용과 같이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 따른 특징들을 추출하였는데, 각각의 특징에 따른 내용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통합차원에서는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지속가능

한 커뮤니티로의 재생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로의 재생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과거 공업지역 등 기존의 쇠퇴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CCRC는 전원마을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는 도심내 커뮤니티로 계획되어 지역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동시에 노인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살리는 전략을 보여준다. 다른 세대간의 사회통합 특징의 내용은 젊은 학생들과의 교류를 아이디어로, 교육 프로그램, 원예 등의 활동들을 학교에 근접한 공간적인 교류를 다양하게 포함하여 세대간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러한 예제는 지역이 쇠퇴되어 가는 사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과 노인주택의 연계는 적용하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웃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특징의 내용으로는 새로운 주거로 이동하지 않고 노화와 함께 기존의 이웃들과 함께 사는 개념과 노인 커뮤니티 주변의 이웃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자원을 교류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노인의 고립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사례들은 은퇴 커뮤니티로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독립적으로 계획하려는 시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대안을 제시해준다 하겠다.

둘째,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환경 특징이 가장 많았는데, 외부환경으로의 접근을 개선하고, 청각이나 시각에 손상이 되거나 약화된 노인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지원성을 지니는 등의 내용이였다. 이러한 특징은 노인인구들이 시설에서 케어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개인의 활기뿐 아니라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거주자들에게도 활기를 높여주는 이득을 주게 된다. 새로운 기술 특징으로는 로봇주차,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기법의 개발과 도입으로 커뮤니티 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등 커뮤니티 전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또는 법규 특징에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서 디자인의 기획단계가 중요하며, 거주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커미셔닝 등 디자인의 체계적 과정, 법규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고령화 인구를 위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할 때,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물론,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기술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기획부터 완성까지 디자인의 체계적인 과정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웰빙차원에서는 보호의 질을 높이는 환경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실내 공기나 음환경을 좋게 하며 건강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변 환경이 거주자 케어의 질을 높임으로써 Aging in Place를 도와주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특징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 빌딩의 도구를 개발하거나 노

인주거 환경에서의 건강과 지속가능성, 재생의 개념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지속가능한 고령자 생활을 이루게 해주는 여러 시도들을 보여준다. 사람중심 케어 특징은 간호를 제공하는 입장이거나 시설의 입장에서 디자인이 접근되던 과거의 흐름에서 간호를 받는 사람이나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며, 집과 같은 환경 특징은 환경적으로는 시설적인 느낌에서 보다 집에 가까운 작은 집 단위의 계획이 시도되는 내용이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대규모로 계획되고 시설적 간호를 강조하는 노인주택에의 접근은 이미 선진국에서 극복되어야 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됨을 보여주며, 개인과 가정이 중심이 되는 패러다임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지속가능성의 개념하에 지역사회 통합차원과 커뮤니티의 활성화 차원, 개인의 웰빙 차원으로 EFA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세대간의 통합과 이웃과의 연계, 일상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 계획, 그리고 사람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집과 같은 고령 친화 환경은 노인의 삶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활기를 불어넣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한국의 노인을 위한 환경을 계획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방향을 보여준다.

## 5. 사례

### - 새로운 방식의 은퇴커뮤니티 계획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EFA에서의 여러 발표내용들을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개념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경향으로 정리했는데, 이중 최근에 시도된 혁신적인 기법의 사례 두 가지를 들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을 기반으로 한 은퇴 커뮤니티(UBRC -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계획이 있다. 지난 7~10년 전까지는 Indiana 대학과 Iowa 주립대에서 은퇴한 교수진들을 위한 주거단지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단순한 동네의 컨트리 클럽같은 분위기였다. 이후 이에 대한 계획이 증가하여 100개 이상의 은퇴마을이 계획되거나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Cornell 대학, Stanford 대학, Pennsylvania 주립 대학 등 저명한 대학이 이러한 계획에 함께 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Pennsylvania 주립대학에서의 대학기반 은퇴커뮤니티를 보여주는데, 이곳은 대학교와 주변쇼핑, 의료시설 등 주변 지역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UBRC는 미국내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노인주거부분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후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점점 더 성장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대학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서는 거주자들이 운동 시설이나 예술 전시, 공연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연계된 대학의 학생들은 UBRC 거주자들에게 조언을 얻거나 커뮤니티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등 서로 다른 세대간 상호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이는 노인들의 삶에 활기를 주어 노인의 지속력을 높여주며, 세대간 교류를 통해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겠다. 미국내에서의 지금까지 사례들에서 UBRC는 노인층을 계획하는 업체에게는 유명한 대학의 이름에서 오는 브랜드 효과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될 때를 대비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점점 더 각광받고 성공하는 UBRC방식과 그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미국에서 그동안 은퇴후 거주지라 하면 바닷가에 위치한 휴양지같은 주거단지라는 고정된 관념이 지배해왔으나 UBRC 등의 새로운 시도들로 인해 계획의 방향을 바꾸어가려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친화 환경 개발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전해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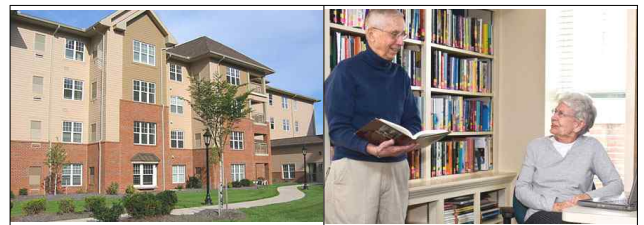


그림 2. Pennsylvania주립대학과 연계된 은퇴 커뮤니티

다음으로는, 기존의 쇠퇴지역이나 쇠락해져가는 도시를 대상으로 노인층(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을 계획하여 생명력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기법의 제안이 있다. 미시시피주 주변의 Shaller Family Shollom East Campus 사례가 「EFA2019」에 다루어졌는데, 이전에 공업지역이었던 곳으로 60에이커의 땅에 노인 주거시설을 계획한 사례이다. 미국의 경우, 노인층은 흔히 서버브라 불리는 교외에 따로 계획되는 것으로 인지되어 왔으나,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기 어려워져 멀리 나가지 못하는 등 고립의 문제가 제기된다. 고립에서의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EFA2010」에서 전략적으로 제안된 것은 노인주거시설을 도시 내부에 계획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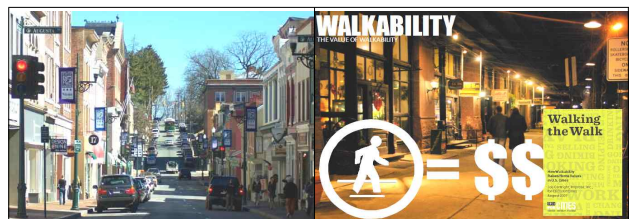


그림 3. 도시재생과 은퇴 커뮤니티 연계계획 이미지사례

기존의 도시 안에는 그림 3.에서 보이듯이 여러 가지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판매시설, 소규모 사업형태들, 교육시설, 교통시설 등 기존 도시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노인층을 계획하면 보다 활기있는 노인주거환경이 될 수 있고,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의 쇠퇴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이 계획안은 보도환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노인에게 있어 보행 즉 걷기는 건강하고 생기있는 삶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운전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해주는 전략은 노인과 도시 모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은 계속 팽창해나가고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다른 중소도시들은 이를 모델로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도시별 개발 방향에 노인주거 계획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것은 도시재생에 있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6. 결 론

본 연구는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축적해온 국가들에서 더욱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최근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계획되었다. 고령화되어가는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지속성이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고령친화 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새로운 시도로서 도시와 노인층 양쪽 모두의 자원을 활용하여 활기를 높이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하겠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만큼이나 빠르게 교류되는 사회로 인하여 국제 컨퍼런스는 중요한 정보의 장이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교류된 정보를 내용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노인환경전문학술대회 EFA에서 발표된 논문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어떻게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가, 고령자 커뮤니티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 개인이 노화로 인해 계속 쇠퇴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생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 시도되고 있는 것은 비중의 차이가 있으나 이 세 개가 모두 다양하게 시도됨을 알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노인 집단의 사회적 지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방법이 결국은 커뮤니티의 활력을 찾는 방법으로 호혜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실제, 사회적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가능한 대상은 노인만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인구 집단의 균형을 상호간에 맞출 때 더욱 존속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성과는 아직 고령친화 커뮤니티가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전용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 함을 알려주며, 또한, 개발할 때 어떠한 사회통합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

디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의 분석 내용은 순수한 연구만이 아니라, 산업계, 학계, 도시 현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경향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숙지하고 컨퍼런스가 정보 클러스터로서 이전의 내용 분석 대상이 되어온 연구 자료들에 못지않게 이 시대의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박근형, 양우현. 1996. "노인을 위한 도시 공동 주택의 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1호.
2. 이송현, 황연숙. 2008.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가능성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8, No.6.
3. 이연숙. 2003.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 연세대학교 출판부.
4. 이연숙, 이성미 기획편집. 2006. "고령화사회 혁신디자인". 디자인네트.
5. 이연숙, 이성미. 2006. "건강주택: 21세기 미래 주택 기획을 위한 전략적 신사고". 연세대학교 출판부
6. 이연숙, 윤혜경. 2008.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Garden의 사회적 지속가능디자인 특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 3호.
7. 이정화, 이연숙, 이수진. 2007. "고령화미래 사회통합방안으로서의 기존 주거지역내 노인공동사용주택에 대한 태도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7, No.4.
8. 이용우 외. 2004. 3. "해의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사례와 시사점". 도시정보.
9. 전명숙. 1995. "서울시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 1:노인 주거유형과 환경 요구와의 관계". 한국주거학회지, 제6권 1호.
10. Baker, Susan. 2006. "Sustainable Development". Routledge.
11. Butler, Robert N.. 2009. "Re-creating neighborhoods for successful aging". Health Professions Press, Inc., xiv.
12. Calkins, M.. 1995. "From aging in place to aging in institution: Exploring advances in environments for aging". The Gerontology, Vol.35.
13. Harris, D. K., 1988. "Dictionary of gerontolog".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14. Huttman, Elizabeth D.. 1985.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Free Press, New York.
15. Lee, JungHwa. 2007. "Responses of Korean Elderly to Elderly Shared Group House". 연세대 석사논문.
16. Mario Polèse & Richard E. Stren eds. 2000.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Cities -Diversity, and the Management of Chang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Canada.
17. Nicholas Low. 2000. " Book Review".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Mar. 2002. Vol.92(1).
18. Rick Gates & Mario Lee. 2005. 5. "City of Vancouver Policy Report -Social Development".

투고(접수)일자: 2010년 6월 3일

심사일자: 2010년 6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